

완도 신지명사십리 2년 연속 '블루플래그' 인증



2년 연속 블루플래그 인증을 획득한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



완도군은 2일 FEE 국내 본부로부터 명사십리해수욕장의 블루플래그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완도군 제공>

안전·환경 등 탁월한 해수욕장 입증
국내 유일 인증...최고 휴양지 증명
환경교육재단 국내본부 인증서 전달

완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이 2년 연속 블루플래그 인증을 획득했다.
완도군은 환경교육재단(FEE) 국내 본부인 FEE 코리아로부터 블루플래그 인증서를 전달받았다고 2일 밝혔다.

블루플래그 인증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FEE가 안전, 환경교육, 수질, 주변 환경 등 4개 분야 29개 평가 항목과 137개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해수욕장에 부여하고 있다.
1985년 유럽에서 시작해 2001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50개국 해수욕장과 마리나가 인증을 취득했다.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은 지난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증을 획득했다.
완도군은 트래킹 코스로 인기가 많은 약 3km의 테크로드를 깔고하고 안전하게 정비했다.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 등 관광 약자들이 물가에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환경 야자 매트도 설치했다.
명사십리해변은 피서철 단순한 물놀이 공간을 넘어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 해수욕장, 노르딕워킹, 해변 필라테스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아름드리 해송 숲에 각종 운동 기구를 설치했으며 울여름 전국 몸짱들이 즐겨 찾는 머슬비치(Muscle Beach)로 운영한다.
해수욕장 운영 기간 쿨(COOL) 콘서트와 보디

빌딩 대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최선의 해변으로 운영한다.
건강 포장마차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욕구 충족으로 휴양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명사십리해수욕장이 2년 연속 블루플래그 인증을 획득한 것은 국내 최고 휴양지의 명성을 증명한 것"이라며 "명사십리를 사계절 방문객이 찾아오는 국내 최고의 여가·해양치유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 드론 활용 벼 직파재배 선보여



무안군이 지난 29일 일로읍 망월리에서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재배(사진)를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재배는 일반적인 벼농사에 필요한 모판에서 모를 기르는 육묘 과정이 없이 법씨를 눈에 바로 뿌려서 모를 기르는 재배법으로 초기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직파재배는 잡초 방제가 어렵고 벼의 수량과 품질이 떨어진다던 인식 때문에 확산되지 않았다.
그러나 드론으로 직파재배를 할 경우, 기계이앙 대비 생산비가 ha당 최고 120만원이 절감되고 작업시간도 6분의 1로 줄이는 효과가 있어 직파재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작업 생력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 30대를 지원, 비료주기와 병해충방제 등 주요 농작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에서 노동력 절감은 필수적인 과제"라며 "드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보급해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6월의 해양치유식품에 '바다의 불로초' 다시마

완도군이 '6월의 해양치유식품'으로 미세먼저·중금속 배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시마를 선정했다.
완도는 연간 17만9400여의 다시마를 생산,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한다. 주로 금일엽과 고금면, 약산면 등에서 생산되며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가 절정이다.
'바다의 불로초'라 불리는 다시마에는 칼슘과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C 등이 다량 함유돼 있다. 특히 수용성 섬유질인 알긴산이 풍부한데 끈끈한 점액질의 성분 때문에 몸속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국립암센터 분석에 따르면 다시마와 미역을 섭취했을 때 대장암 발생 위험을 각각 42%, 18%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 윤림산방 인근 30ha 규모 편백숲 산림욕장 개장

2km 달하는 무장애 숲길 조성
트리하우스 등 놀이시설 추가
진도군이 윤림산방이 자리한 점찰산에 편백숲 산림욕장을 조성, 개장했다.
진도군은 의신면 사천리 일원 30ha의 편백숲을 산림욕장으로 조성해 개장했다고 2일 밝혔다.
편백숲 산림욕장에는 국비 15억원을 들여 2km에 달하는 무장애 숲길을 조성했다. 일반 보행자뿐만 아니라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모든 계층이 숲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유아숲과 연계해 트리하우스, 암벽등반, 모래밭 체험, 그물다리 등 놀이시설을 추가해 아동들이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편백숲 주변에는 금계국, 작약, 송엽국 등 각종 야생화를 심어 피톤치드를 통한 힐링효과와 함께 아름다움까지 선사한다.
편백숲 산림욕장과 연계해 여름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사천리 물놀이장이 인근에 있다.
물놀이장은 워터드림 등 물놀이시설 3종이 마련돼 있다. 물놀이장에 공급되는 물은 점찰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청정 계곡물인 100% 지하수를 제공한다.
점찰산 자락에는 국가 지정 명승지 제83호인 윤



진도군이 의신면 사천리 윤림산방 인근 30ha 규모 편백숲을 산림욕장으로 조성해 개장했다. <진도군 제공>
림산방, 삼별초대마공원과 오토캠핑장, 천년고찰 쌍계사 등 관광명소가 즐비하다.
진도군 관계자는 "인근 오토캠핑장, 물놀이장과 함께 윤림 삼별초공원 일대가 자연친화적 힐링 공간으로 거듭난다"며 "수준 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진도의 자연휴양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무안신협, 신협발전협 창립총회



무안신협(이사장 정양태)이 지난 28일 '신협발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 회장으로 송남수 씨를 선출하고, 부회장 최옥수씨, 사무국장 김옥일씨, 간사 조분근씨를 확정했다.
송 신임 회장은 "신협과 신협발전협의회 간의 건전한 모임으로 출발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신협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홍보에도 앞장서겠다"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류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